전법 일기

장애인은 희망의 꽃이다

사람들의 걷는 속도가 다르거나 말하는 방식이 다르다고 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창이 다르다고 해서 멀어져서는 안 된다. 우리는 모두 같은 길 위에 서 있고, 각자의 걸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존재들이다. 느린 발걸음 속에도, 더듬거리며 이어지는 말 속에도, 세상을 향한 진실한 마음은 담겨 있다.

나는 상담과 법회를 통해 많은 장애인들과 함께하며 매일 아침이면 직업재활원 발달장애인들과 마주하게 된다. 출근하는 발달장애인 중 매일 법당에 올라와서 부처님께 참배하고, 온 직원들에게 인사를 마치고 업무를 시작하는 것이 습관이 된 친구들이 있다. 만일 출근 시간에 눈을 맞추지 못하면 휴식 시간에라도 찾아와서 얼굴을 마주하니 그들에게 사랑의 마음이 깊이 쌓인다.

그들은 나보다 걸음이 느릴 수 있고, 소리를 못 듣고 볼 수도 없지만 세상을 바라보는 눈빛은 나와 다를 수 없다. 그들은 예전엔 세상의 편견과 차가운 시선에 부딪히며 상처를 입기도 했지만, 이제는 굳게 다져진 불심(佛心)으로 다시 일어나 웃음을 지으며 하루하루를 살고 있다. 이들의 그 웃음 속에는 단단한 용기와 따뜻한 사랑이 담겨 있다. 그 모습은 나에게 늘 큰 울림을 준다. 장애는 결코 한 사람의 가치를 줄이지 않는다. 오히려 그 속에서 피어나는 인내와 용기, 사랑이 세상을 더 따뜻하게 만들고 있다.

같은 햇살 아래에서도 꽃마다 다른 색을 피워 내듯, 그들의 삶도 각자의 자리에서 고유한 빛을 내고 있다. 각자의 눈동자에 담긴 세상은 내가 아직 보지 못한 한 송이 진리일 수 있다. 조용히 멈춰 선 그 자리에는 내가 알아채지 못한 연꽃이 피어 있었는지도 모른다.

모든 존재는 자기 자리에서 피어나는 꽃이다. 바람이 다른 방향으로 불어도, 그대는 그대답게 충분히 아름다운 사람이다. 장애가 있다고 해서 삶이 멈춰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넘어지면서도 다시 일어나는 그 마음이야말로 진짜 용기이고, 세상을 밝히는 힘이다.

연꽃은 진흙 속에서 피어나지만 그 꽃잎은 맑고 고요하다. 장애인의 삶 또한 그러하다. 흔들리며 피는 꽃이 더 향기롭듯, 그들의 삶도 바람 속에서 더 깊고 단단해진다. 어려움 속에서도 맑은 마음을 지켜내며 세상을 향해 희망의 빛을 내뿜는다. 그 빛은 단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두를 위한 것이다.

장애인은 희망의 꽃이다. 그 꽃은 세상의 편견을 넘어 서로 다른 자리에서 함께 어울려 피어나며, 우리 모두에게 삶의 의미를 다시 일깨워 준다. 맑고 고요한 마음으로 세상을 밝히는 그들의 존재는 어둠 속에서도 빛을 잃지 않는 등불과 같다. 장애인은 단순히 보호받아야 할 존재가 아니라, 우리 사회를 더 아름답게 만드는 희망의 꽃이다. 우리는 장애인들이 희망의 꽃을 가득 피울 수 있도록 아름다운 넓은 마음의 정원을 잘 가꿔야 한다.

그 꽃이 피어나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사랑과 자비, 인간다운 삶의 가치를 깨닫게 된다. 그 깨달음은 우리 마음속에 작은 씨앗이 되어 언젠가 더 큰 숲을 이뤄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될 것이다.



해성 스님 사회복지법인 연화원 이사장



김권태의 요즘 학교는

㉓ 사랑보다 더 깊은 사랑

상대의 단절과 외로움을 알아차리라

"다 너 때문이야. 너 만나고 나서 내가 이렇게 됐어!"

"제발 좀 하지 말라는 건 안 하면 안 되니? 너는 내 말을 귓등으로 들어?"

"네가 나한테 해 준 게 뭔데? 너는 항상 그래! 너랑 얘기해 봤자, 내 입만 아파!"

사랑하는 사람들이 어쩌다 이런 대화만 주고받게 된 걸까?

자기는 원래 안 그랬는데 그를 만나서 성격 파탄자가 됐고, 조금만 개선해 달라는 부탁에도 그는 끝까지 변하는 게 없고, 아무리 잘해 보려 노력해도 그는 늘 같은 말을 반복하게 한다. 그러고는 이렇게 맨날 싸우느니 차라리 그만두자고 말한다. 사랑이 지옥도가 된 풍경이다.

꽤 모범적인 학생이 한동안 학교를 나오지 않아 그 배경이 궁금했다.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진 채로 등장한 학생은 시름시름 앓는 것처럼 어딘가 아파 보이고 무기력했다. 여러 루트로 조심스럽게 알아보니, 부모님이 최근에 이혼해 그 충격으로 정신과를 다니며 약을 먹는다고 한다. 왜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과 그렇게 싸우는 걸까.

교직생활을 하다 보면 정말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된다. 하루에도 수백 명의 학생들과 마주치고, 또 같은 공간에서 부대끼며 수업을 한다. 서로 신념이 다른 선생님들과 만나게 되고, 다양한 요구를 가진 학부모들을 만나게 된다. 이런 만남이 얼마나 고단한지, '선생 똥은 개도 안 먹는다'는 속담이 있을 정도다.

그래서 고단함을 진단하는 나만의 기준이 있다. '화가 일어났다'는 것은 지금 나에게 긍정 자원이 바닥났다는 신호이고, '불안이 밀려오는 것'은 지금 나를 위협하는 것들이 주변에 포진해 있다는 신호임을 아는 것이다. 그리고 비상 센서에 불이 켜질 때마다 그 원인들을 찾아보고 점검한다.

화는 긍정 자원 바닥났단 신호

불안은 주변에 위협 존재 징후

문제 행동 시 도움 요청 감지해야

학생들과 지내다 보면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순간이 있다. 명백한 잘못을 저지르고도 전혀 반성의 기미가 없거나 남 탓을 하는 경우다. 대체 머릿속에 뭐가 들었나, 마음이 들끓다가도 '아, 내가 지금 긍정 자원이 바닥났구나!'라는 알아차림에 곧 평정심을 되찾는다. 그리고 모든 문제 행동은 도움을 요청하는 왜곡된 신호이자, 숨은 욕구를 발견하는 단서임을 알아차린다. 세상 모든 것은 서로 조건 지어져 일어난 것이니, 그 결과인 감정과 행동만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원인이 채워지지 않은 욕구에 초점을 맞출 때, 매직 아이처럼 떠오르는 새로운 진실을 만날 수 있다.

단계적 관문처럼 사랑 이후에 등장하는 새로운 사랑이 있다. 애착이다. 애착은 어린 시절 아이와 양육자와의 관계 패턴으로, 아이가 거리낌 없이 자신의 미성숙한 감정을 드러낼 수 있는 가장 안전한 대상과의 친밀감을 뜻한다. 새롭게 등장한 이 애착은 상대에게 무의식적으로 부모님과 같은 안전한 환경과 배려가 있는지를 확인하려 하고, 또 어린 시절 마땅히 받아야 했으나 받지 못한 사랑을 자기도 모르는 새 현재 관계에 재연하며 빚을 독촉하듯 파괴적으로 요구하기도 한다. "너는 정말 구제불능이야!"라는 공격은 실은 "언제든 내 곁에서 나를 지켜 줘!"라는 단절과 외로움에 대한 왜곡된 비상 신호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퇴행적 사랑의 숨은 사연들이다.

왜 우리는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들과 싸우는 걸까? 사랑보다 더 깊은 사랑이 시작됐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실을 알아차릴 때, 우리는 이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오래된 출구를 발견하게 된다.

〈동국대사범대학부속중학교 교사〉

기자칼럼

해외포교의 빈틈, 마닐라와 맨해튼이 남긴 경고

2011년 필리핀에 개원해 한국불교를 알려온 '마닐라선원'이 최근 대만 불광산사에 인수됐다는 소식을 들었다. 필리핀 정부에 매각될 뻔한 일도 있었다지만 불광산사의 인수로 불교 명맥을 유지하게 돼 다행이다. 하지만 이면을 들여다 보면 한국불교 해외포교의 현주소를 되묻게 하는 씁쓸함이 남는다.

마닐라선원은 조계종 비구니 무진 스님이 필리핀 현지에서 포교와 수행, 공동체 활동을 일궈 온 도량이다. 타국의 언어와 문화, 제도적 장벽 속에서도 한국불교의 맥을 지켜 온 공간이었다. 그러나 뒤를 이을 상주스님을 구하지 못해 결국 2018년 1월 문을 닫았다는 게 전언이다. 한국불교의 이름으로 쌓아 온 시간과 노력은 그렇게 조용히 막을 내렸다.

얼마 전 홍대선원 주지 준한 스님이 뉴욕 맨해튼 조계사 주지로 부임했다. 맨해튼 한복판, '노른자위' 입지에 자리한 사찰이다. 그러나 실상 대출 규모만 23억원, 매달 갚아야 할 대출 이자가 1900만원에 달한다고 한다.

해외 사찰은 겉으로는 화려해 보여도 이면에는 인력 부족과 재정 압박, 끝없는 책임이 쌓여 있다. 해외 포교 현장은 '한 스님의 헌신'에 기댈 수 밖에 없는 구조로 스님이 떠나가는 순간, 사찰 전체가 흔들린다. 불교계의 시스템 부재를 드러내는 대목이다.

조계종은 해외특별교구를 두고 국제교류위원회를 운영하며 한국불교 세계화를 말하고 있다. 그러나 마닐라선원과 맨해튼 조계사가 보여 주듯 현장은 녹록지 않다. 정보 공유도, 위기 대응도, 인력 순환과 재정 지원에 대한 중장기 구상도 체감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우리가 관심을 두지 않는다면 자금과 인력 문제에 허덕이는 해외 사찰은 또 다른 '마닐라선원'이 될 수 있다. 한국불교 세계화는 선언만으로 이뤄지지 않는다. 귀를 열고 손을 내밀고 함께 책임지지 않는다면 그 말은 공염불로 남을 수밖에 없다.

준한 스님은 조계사에서 집중기도를 올리고 인등을 밝히는 것부터 시작한다고 말했다. 불자들도 수희 동참해 한국불교 세계화를 위해 밝혀진 불씨가 꺼지지 않고, 정법으로 계승되길 기대한다.



임은호 편집국 차장

현밀 스님의 뭉밀이 佛스타툰



